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ING, 'Back to Basics' 전략 구체화

- ING그룹은 자국내 3개 보험회사를 통합하여 소비자 지향 보험사로 재탄생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함.
 - 금번의 결정은 조직을 단순화시키고, 비용을 절감하며,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'Back to Basics'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짐.
 - ING그룹의 자국 내 3개 보험사인 Nationale-Nederlanden, RVS, ING Verzekeren Retail은 2011년부터 Nationale-Nederlanden의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개인 소매영업과 중·소기업 단체보험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.
- 'Back to Basics'는 1/4분기 재무제표 공표시 비용절감, 리스크축소, 부채감소를 최우선시하며,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전략적 목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남.
 - 최근의 손실 대부분이 은행영업부문에서 발생했으나, 유럽지역 등에서 보험영업부문이 손실을 기록한 것도 'Back to Basics' 전략 등장에 배경이 됨.
(ING그룹의 적자보고는 5월18일 KiRi Weekly 해외금융 유럽참조).
 - 보험영업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ING그룹은 국내 보험자회사의 합리화와 소비자 지향의 영업역량 강화를 미래의 포지션으로 구축하기로 함.
- 세부계획으로 소비자의 만족도 극대화, 판매채널의 합리화,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강조함.
 - 소비자의 만족도 극대화는 '편의제고, 맞춤형 개별 자문, 투명성 제고, 계약자 보호'를 통해 달성하기로 함.
 - 예를 들어, 단종상품 보유고객 지원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 새로운 영업팀을 신설하며, 동시에 조직 내 모든 곳에서 혁신과 상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.
 - 또한 기존 판매채널(브로커, 방카슈랑스, 전속설계사)을 합리화시키며, 판매역량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임.
 - 3년에 걸쳐 800여명의 고용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달성할 예정임.
 - 고용 감축은 주로 자연감소, 업무 재배치, 임시직 재계약 포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
(ING 보도자료 7/1, Financial Times 7/1)